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땐 영업정지

내년부터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무조건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이상 공동공사'와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돼 일용근로자의 복지가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부조리와 부실시공을 척

건교부 입법예고…내년부터 일용직들 퇴직공제 확대

걸하기 위해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분 처분관정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과징금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또 부실시공이 우려돼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동공사·민자사업의 범위를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공사의 경우도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된 데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할 경우 과거 '2억원이상 복합공사'실적은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 전부를 전문건설업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 인천공항 출국자

2,878,192명

작년보다 11%↑…광주공항 출국 2만7,331명

을 여름 광주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수는 총 2만7천331명으로 집계됐다. 휴가철인 7~8월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440.8명이 광주공항을 떠난 셈이다.

4일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올 여름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 출국한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천 243명보다 3.98% 증가, 역대 최고인 2005년 2만8천551명에 유후했다.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 출국한 여행객은 모두 287만8천192명(하루 4만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9만8천363명보다 10.8% 증가했다. 이는 개항 첫해인 2001년에 비해 무려 51.1%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7~8월 국제선을 통한 출국자 수는 2001년 189만9천660명, 2002년 199만9천372명, 2003년 193만1천247명, 2004년 230만6천268명, 2005년 246만5천691명 등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여왔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89만8천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62만5천251명 ▲일본 54만2천437명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44만6천990명 ▲유럽 17만2천809명 등이다.

이처럼 해외 출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여행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젊은층 중심으로 해외 여행이 보편화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유가 시대 석유 대안은 석탄”

2020년 이후 주력에너지…정부지원 투자 나서야

LG경제연 보고서

장기적으로는 석탄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고유가 시대, 석탄은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에서 석탄은 부존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도 가격 상승 정도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석유를 대체할 기회 에너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석탄은 그 사용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를 수반하는데, 관련 기술의 발전수준을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이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0~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이오 에너지 전문회사 (주)해조협

美서 9,000만불 투자 유치

바이오에너지 전문회사인 (주)해조협(대표 오재춘)이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대량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해조협은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디젤 회사인 바이오에너지오브아메리카의 파트너인 교포기업 퍼센테크놀로지로부터 모두 9천만달러의 자금을 투자 받아 베트남 30만ha의 농지에 자트로파를 재배. 여기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전량 미국으로 수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해조협은 자트로파의 원형질체 조작에 의한 유전자 조작과 조직배양에 성공

한데 이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오랜 복합영농기법을 축적함으로써 이번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춘 대표는 “바이오에너지사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력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조협은 한국 고유수목인 황칠나무를 200년만에 복원하고 대량 추출기술을 개발했으며, 미얀마·베트남과 대규모 바이오에너지 사업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대한민국 석유 교역전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석유 교역전 프리뷰 인 서울 2007’에서 (주)세코텍 관계자가 EcoB4(불연석유)로 만든 의류의 불연시험법을 보이고 있다. EcoB4는 천연 현무암을 녹여 만든 돌실 형태의 석유로 불연의류 및 불연내장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세코텍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차 임단협 무분규 타결

늦어도 7일 조합원 찬반투표… 노사 상생의 길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상사 10년만에 파업을 하지 않고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임단협 노사협상으로는 12차 본교섭이라는 최단시간에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현대차는 노사상생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현대차 노사는 4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본교섭을 갖고 올해 임단협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임금 8만4천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성과급 100%(임단협 체결시),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 100만원(체결시), 경영실적 증진 성과급 200%,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상여금 750% 지급 등이다.

이 같은 임금안은 완성차 4사의 임단협 타결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사는 또 고용보장을 위한 핵심안건

이었던 현재 정년인 58세를 59세로 늘리되 임금은 동결하는 정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며, 무상주(株) 30주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늦어도 오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4천800여명을 대상으로 노사간 잠정합의를 한 올해 임단협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모두 잠정합의안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 찬반투표는 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노조가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면 현대차 노사 상사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1997년 이후 10년만에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 쉬워진다

주민동의 80%→75%로 완화… 빠르면 내달 시행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요건은 ‘5분의 3이상’에서 ‘4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이 높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당례법 의원이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이상’으로 수정됐다.

대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주민 동의요건 완화가 추진되는 이유

는 해외거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동의요건이 5%포인트 낮아지는 데 불과하지만 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뒤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유업계 “女心을 잡아라”

이용고객 4명 중 1명 여성 문화마케팅 등 경쟁 활발

주유소 이용 고객 4명 중 1명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고객의 비중이 커진데 따라 정유업계들이 여성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문화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 보너스카드를 이용한 고객 중 여성고객은 2002년 말 70만명에서 작년 말 118만명으로 68.6% 뛰었고 전체 고객 중 여성비중은 지난 6월 30%선으로 2002년 말의 약 22%선 보다 약 8%포인트 상승했다.

GS칼텍스의 보너스카드 이용 고객 중 여성비중도 지난 7월 기준 25%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이는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와 여성차량 등록대수가 작년 말 909만명과 189만여대로 지난 2002년 말에 비해 각각 23.0%, 29.5%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남성 운전자들을 공략하는

데 주력하던 정유업계들은 이제 여성고객들의 관심도 끌 수 있는 광고를 보내내거나 다양한 문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여심(女心) 잡기’에 나서 연초에 여성전용 보너스카드를 내놓은데 이어 연중 최대 행사인 ‘왕대박잔치’도 여성에게 초점을 맞춰 상품으로 장바구니를 나누어줬다.

GS칼텍스는 작년 7월부터 주말 오전에 무료로 최신 영화를 관람하며 간단한 식사를 즐기는 ‘시네마브런치’ 행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고객 비중이 시행 전 15%에서 1년만에 10%포인트가 치솟았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국제전문학교	2007년 무료국비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4	062-529-3000
금호월드	총무대리 정규직 남성직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07	062-350-8022
은병원	방사선과 치과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7	062-269-1500
(주)정보리서치	정보관리자 조사원관리 및 사무보조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9/08	062-430-4505
(주)다모이정보통신	여사무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08	062-0444-2200
율컴	편집디자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8	062-222-2775
(주)아인텔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11	062-601-7213
나인필(Ninefill)	웹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11	062-515-1264
(주)첨빛시감	이마트(광주점) 가전 코너 컴퓨터 판매 사원	고졸/경력1년	1600~1800	09/11	031-922-2512
(주)T&T	[고정급14만원/주5일]SK텔레콤 CRM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